광주에 '청년무역 사관학교' 생긴다

지역 대학 재학·졸업자 50여명 선발해 교육

무역 전문인력 양성·공급…부산이어 세번째

우리 지역의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광주청년무역사관학교'가 개설된다. 서울과 부산의 '무역마스터과정'처럼 중장기교육을 통해 무역실무 인력을 키워내게 될 이 기관은 향후 지역 기업들에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양성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4일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올 여름방학을 이용해 무역 실무를 가르치는 '광주청년무역사관학교'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의 연수원인 무역아카데미가 있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올 하반기 경북도와 함께 지역 최초로 개설되는 중장기 무역인 전문 양성과정이다.

교육생은 모집과 추천을 통해 대학생 및 대졸자 50여명을 선발해 1개월 동안 사전 온라인 교육을 하고, 방학기간인 7월 중 광주 광산구 운수동 광주무역회관 2층 연수실에서 총 200시간 안팎의 실무 교육을 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무역실무 개요와 해외마케팅, 수출 절차 및 무역계약, 대금결제 등이며 무역실무, 비즈니스영어, 해외 마케팅, 최고경영자(CEO) 특강 등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특히 외국어에 약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무역영어 강좌도 마련된다.

수료생들에게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이력서 작성과 면접 기법 등을 가르치고 협회 인턴십 사업에 가점을 주는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실무 교육이 끝나면 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2~3개월의 현장실습이 진행된다. 현장실습을 통해 수료생에겐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백재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 지역에서 수출기업들은 나날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무를 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니즈'(Needs)를 반영하고, 지역 대학교와 연계해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가 경북도청과 손잡고 올 하반기 개소하는 만큼, 학교 개설 뒤 광주시 등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하고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동률기자 exian@

우윳값 인상 백지화

정부 물가잡기에 보류

새정부의 고강도 물가잡기에 우유가격 인상 계획이 백지화되며 유업계가 울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지난해 연말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1ℓ 들이 흰우유 가격을 2300원에서 2350원으로 50원 인상하기로 사실상 의견 조율을 마쳤지만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이 제품 가격을 2350원으로 올렸다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가격을 다시 내려 판매해 왔다.

이번에도 할인 이전 가격으로 되돌아가려 한 것이지만, 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인상에 실패한 셈이다.

우유가격은 2011년 원유가 인상과 함께 일괄 조정된 이후 같은 수준을 이어왔다.

특히 서울우유는 애초 흰우유 가격을 100원 올리려다 비판 여론에 떠밀로 50원만 올린 후 추가 인상 시기를 잡지 못해 왔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서울우유가 이전에 올려받지 못한 50원을 추가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사실상 의견 조율을 마쳤다"며 "정권 교체 이전에 가격을 올린다는 방침이었지만 식품가격 인상이 워낙 문제가 되다보니 그냥 없던 일이 돼 버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내심 서울우유의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잇따라 우유 가격을 올릴 계획이던 유업계도 울상이다. /연합뉴스

뮤지컬 공연장 된 백화점 로비 23일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 백화점 1층 광장에서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낸 뮤지컬 '비밥(BIBIAP)' 공연이 열렸다. 문화주간 행사 '컬쳐위크(Culture Week)'의 하이라이트로 진행된 이번 무대는 난타와 비보이, 비트박스를 접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광주신세계 제공〉

'NH농협은행 목포愛 가족봉사단' 발대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고태순 본부장)는 지난 22일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지부장 김귀남)에서 목포 지역에 있는 농협은행의 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NH농협은행 목포愛 가족봉사단'이 출범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농협 가족봉사단은 전남 최초로 농협은행 직원의 가족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목포지역의 공공장소 환경정화활동, 노약자 시설 방문봉사,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가구에 대한 필요물품 지원 등 이웃에 대한 사랑실천을 위해 결성됐다. /최재호기자 lion@

농·수·신협 대출금리 첫 개편

기준금리·표준계산식 도입

농협·수협·신협 등 전국 2300여개 상호금융 조합의 대출금리 체계가 사상 처음으로 개편된다.

은행권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비슷한 공통의 기준금리를 개발하고, 가산금리를 산출하는데 쓰이는 표준 계산식이 도입된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대출자 몰래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병폐 차단 목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상호금융 대출금리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고 이달 중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상호금융 조합은 예탁금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정하지만, 금리 결정 방식이 '주먹구구' 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특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 상호금융 조합들이 줄어드는 수익을 메우려고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는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TF에서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와 비슷하게 상호금융 공통의 기준금리를 개발하고, 가산금리 산출에 쓰일 표준 계산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준금리는 '내부 기준금리'로 불리는 MOR(Market Opportunity Rate)과 전국 단위 조합의 예탁금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가 쓰인다.

가산금리와 관련해선 자금조달 비용, 대출자 신용도, 업무비용, 적정 이윤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표준화해 계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연합뉴스

카드 서비스 변경 문자 통보 의무화

다음 달부터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 부가 혜택을 변경할 때 카드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가 의무화된다.

카드 혜택의 축소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내달 시행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른 추가 조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가 혜택 변경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기로 했다"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지만 고객 편의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 ICT협동조합 김창식 초대 이사장

"대기업 中企사업 침해 강력 대응 산학연구 지원…ICT 경쟁력 제고"

"IC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어떤 분야인지 널리 알리고,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린 모범적인 조합으로 이끌겠습니다."

22일 출범한 한국ICT협동조합 김창식(56·남선산업㈜ 대표이사)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중소업체간 가교역할을 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는 수도권과 호남권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향후 전국의 우수한 업체들이 새 가족으로 들어올 것으로 낙관한다"며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한국전력 등 국내 ICT 3대 기관의 광주·전남 이전도 조합 결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협동조합의 취지대로 중소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분야를 침해할 경우 조합이 나서서 정부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지역 중소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협동조합이 공동수주 등 자신들만의 경제적 이익과 권익보호만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ICT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익적 차원의 산학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해외시장을 뚫기 위한 해외사업 공동진출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국내 ICT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새로운 도약과 창조적 경제성과를 함께하는 협동조합'이라는 비전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3년 안에 충분한 성과를 내 공익기금이나 장학금을 조성해 문화·예술산업 진흥과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셀프주유소 많아졌다

전국 1천개…광주·전남 33곳

저렴한 기름값을 무기로 한 셀프주유소가 1000개를 넘어섰다.

24일 한국주유소협회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설립된 셀프주유소 수는 작년보다 67% 증가한 1068개로 집계됐다. 셀프주유소가 1000개를 돌파한 것은 2003년 첫 등장 이래 10년 만이다.

2007년 59개에 불과했던 셀프주유소는 2009년 299개, 2011년 637개 등으로 급증했다. 2007~2012년 연평균 증가율은 340%에 달한다. 개수로 치면 매달 평균 14개씩 증가한 셈이다. 전체 주유소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0.4%에서 8.1%로 수직 상승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영업 중인 셀프주유소도 33곳에 이르는 등 크게 늘었다. 이는 2010년 17곳에 불과했으나 2011년 26곳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셀프주유소가 인기를 끄는 것은 무엇보다 일반 주유소에 비해 기름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ℓ당 2000원을 오르내리는 고유가 시대에 10원이라도 싼값에 주유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한몫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셀프주유소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비례해 손님도 느는 추세"라며 "특히 휘발유값이 ℓ당 2000원에 육박한 작년에는 셀프주유소가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렸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적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와 가격으로 경쟁하려면 셀프주유소 외에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넓게 자리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셀프주유기 가격이 일반형에 비해 비싸 초기 투자비용이 많긴 하지만 가격경쟁력이 이를 상쇄해 당분간 셀프주유소 전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선릉점(선릉역 2번 출구):02)56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스필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광내 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이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빌):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68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